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1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3월 9일 수요일 (음 2월 1일) 제151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4 · 13 총선 D-35

새누리 전북도당, 웃음꽃 '활짝'

14명이 공천 추가접수
일부 지역경쟁률 3:1 관측

지지율 10% 선 웃돌아
더민주-국민의당 대립 영향

새누리당 전북도당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야권 분열이라는 선거 행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당 후보들이 어부지리를 위해 공천신청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공천신청 추가 접수 결과 총 14명이 손을 들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3:1이라는 새로운 기록 갱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8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가신청을 7일까지 진행한 결과 도내 10개 선거구에 총 14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당초 1차 10명보다 4명 늘어난 수치인데다 1명이 추가 대기 중이다

공천신청자 현황을 보면 전주갑은 천상덕·전희재 예비후보, 전주을은 정운현 예비후보, 전주병 양현섭·김성진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군산은 채용복 예비후보, 익산갑 김영일·임석삼 예비후보, 익산을 박종길 예비후보, 남원임실순창 김태구·김용호 예비후보, 정읍고창 김성균 예비후보, 김제부안 김효성 예비후보, 완주진안무주장수 신재봉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2:1로 치러질 경선 지역이 4곳에 이른다

특히 새누리당 전북도당 사상 최고 경쟁률 지역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남원 A씨의 경우 중앙당 등 관련 입당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불법행위 등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통과될 경우 남원임실순창은 3:1이라는 기록이 새롭게 쓰여질 수도 있다

이는 역대 총선과 비교해 괄목할 수준이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 예비후보는 모두 10명이었지만 이 중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8일 서울 여의도 당사 공천 신청자 면접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X 자 표시를 하고 있다

나의 'X' 표시... 의미는?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8일 서울 여의도 당사 공천 신청자 면접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X 자 표시를 하고 있다

7명이 본 선거에 뛰어들었다

도당은 전주덕진과 군산, 진안무주장수입삼 고창부안에서는 총선 후보를 내세우지 못했다

18대의 경우 한나라당은 도내 11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등록시키며 통합민주당과 1:1로 진검승부를 펼쳤지만 지역 정치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전패했다

앞선 17대는 더욱 초라한 성적을 냈다

당시 도내 11개 선거구에서 본 후보 1명만이 나서서 총선을 치렀기 때문이다

17대 총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간 고래싸움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1명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을 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시점이었다

전북에서는 탄핵 역풍으로 인한 열린우리당 강세로 그 기세에 압도적으로 밀리던 한나라당 전북도당은 제대로 된 총선을 치를 형편이 되지 못한

시절이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이처럼 많아진 이유는 새누리당에 대한 도내 지지율이 예전과 달리 평균 10% 선을 웃돌고 있는 데다 일부 후보의 경우는 20%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전북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되느니 무소속 후보로 뛰는 것이 낫다'는 정치적 선택보다는 '고정 지지율과 본인 경쟁률로 승부를 걸겠다'는 후보가 늘고 있는 셈이다

실제 19대 무소속 후보는 18명, 18대 14명, 17대 23명으로 새누리당 후보를 압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당의 표정엔 여유가 묻어났다

도당 관계자는 "최근 전북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10~20%까지 오르고 있어 점차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지역 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사이버테러방지법 여야가 합의할 문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사실상 직권상정 처리를 요구한 데 대해 "여야 합의가 중요하니 합의해 달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중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정 의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함께 심사기일을 지정(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만 직권상정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 등 정중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성주 기자

北, 사이버 공격 확산

국정원 "정부 주요 인사들 통화내역 등 빼내"

국정원은 8일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내용 등을 빼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최종일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미래부, 금융위, 국방위 등 14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정부 주요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해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내용까지 절취했다

북한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에 유입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삽입 방식으로 공격, 공격대상 스마트폰 중 20%가량이 감염되면서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또한 국민 절반 가량이 인터넷뱅킹, 인터넷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사의 내부 전산망에 북한 해킹조직이 침

투해 전산망을 잠악한 것을 확인했다. 곧바로 보안조직에 들어가 업체 서버 외에 일반 국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내 금융기관에 인터넷 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의 전자인증서(코드 서명)도 북한에 의해 해킹 탈취된 사실이 지난달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은 다수의 국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내부정보 유출 방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활용해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국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2월께 지방의 철도운영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유포해 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메일 계정 등에 대해 차단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성주 기자

알림

총선 특별취재반 운영

전주매일이 내달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정중선거로 유도하기 위해 '4·13 총선 프로그램, 전북의 희망을 뽑자'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본보는 고민형 정경부장 등 본사기자들과 각 지역 주재기자들로 구성된 총선특별취재반을 운영합니다

특별취재반은 본지 '20대 총선 보도준칙'에 따라 현장의 생생한 뉴스와 다양한 소식을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 소개와 함께 정책을 검증하고 감시 기능도 더욱 강화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선특별취재반장 = 고민형 정경부장
- ▲비원 = 신명영 부장, 박용주 사회부 차장, 정영수 기자, 군산 문정근 기자, 익산 정영원 차장, 정을김대환 부장, 김제 박노태 국장, 남원 유영철 부장, 부안 이육수 국장, 고창 김영식 부장, 임실 진홍영 부장, 순창 구인규 부장, 진안 우태만 국장, 장수 고훈호차장, 무주 전문선 부장, 완주 이종복 차장
- ▲20대 총선 부정선거 제보 = 전화 288-9700, 팩스 288-9703

전주매일

'청소년이 아름답아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 6 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그동안 청소년 마술 동호인들의 전폭적인 관심속에 개최되었던 전국 청소년마술경연대회가 올해로 6 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과 전주매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끝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일 시 : 2016. 3. 26 (토) 15:00 ~

장 소 : 전주 동부비전센터 5F 비전홀

주 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공동주관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

대회참가문의 : (☎) 전주매일 문화사업국(063.288.9700)